

왜 예술을 하는가



홍 경 안 의
시시일과

미술이든 음악이든 마찬가지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큰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회적 위상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자식애겐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직업이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예술을 하는가.

동기는 다양하다. 어떤 이는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환원해 사회적 담론을 촉발한다. 전쟁,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 혹은 책임감이 그들을 움직인다.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술은 생존의 수단이다. 내면의 혼돈과 고통을 감내하게 해주는 방법이자,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색채와 형태, 소리와 몸짓으로 치환하여 치유하는 길이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조차 없다. 어떤 예술가는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한다. 숭고한 결단이 아니라, 창작 행위가 선사하는 원초적

즐거움과 충족감에 이끌려 운명처럼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도 있다.

이 밖에도 순수한 미학적 탐구 자체를 동기로 하거나 다른 무엇과의 연결에 대한 열망 또한 예술을 하는 이유가 된다. 형식과 내용의 완전한 조화, 색채의 순수성, 구성의 절대적 균형, 아름다움의 본질적 구현, 소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작품은 하나의 미적 우주이자, 현실 너머의 차원을 엿보게 하는 창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창조적 충동과 무언가를 해석하려는 욕망이다. 이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하려는 본능적 에너지이며, 감각과 사유를 형상화하여 타자와 공유하려는 인간 본성과 직결된다. 예술은 바로 그 욕망이 구체화된 결과이자 존재를 드러내며 세계를 새롭게 열어젖히는 행위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든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이 예술가의 후속 선택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방향, 주제의식, 매체, 발표 공간 등 모든 것이 이 질문 위에서 다시 질서화된다. 미술계 내에서의 관계망 역시 동일한 질문으로부터 생성된다.

명확한 동기를 지닌 예술가는 실험기를 거치며 작품의 내적 논리를 구축하고 미학적 지향을 견고히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이들의 작품은 한결같은 문제의식과 탐구의 궤적을 보여주며, 흔들리지 않는 예술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 반대로 동기가 희미한 경우에는 방향을 잃고 외부의 유행이나 시장의 요구에 쉽게 흔들린다. 자기만의 미적 언어를 정립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작은 파동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

예술가는 창작의 경험을 축적하며 변화하고 성장한다. 예술가와 그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시대적 맥락과 개인적 상황, 태도도 달라진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은 예술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근본적 토대이자, 의미 있는 작품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예술은 개인의 영역에서 집단의 기억과 감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예술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질문의 끈질긴 지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미술평론가

트럼프의 각본



김 언 세
(정책사회부)

얼마 전 해외의 한 음식점에서 미국인 부부와 합석을 하게 됐다. 우연한 기회였는데 손님들이 빙 둘러 앉는 찰판구이 집이었던 탓이다.

회갑쯤 돼 보이는 부부는 시애틀에서 왔다고 말을 걸어 왔다. 기자도 스타벅스 1호점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이어 갔다. 부부는 딸의 남자친구 얘기까지 늘어놓는 등 서글서글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대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왔다. 이에 살짝 웃음만 짓고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영어도 쥘거니와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기가 좀 그랬다.

부부는 트럼프를 안 좋게 말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상호관세 얘기를 꺼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에 화가 난다고 했다.

고개로만 살짝 맞장구 쳐 줬더니 남북 관계를 묻는 등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식사 말미에 알게 됐는데 남편은 남미 태생의 이민자였다. 트럼프에 대한 비난은 전형적인 앵글로색슨인 부인이 더 조목조목 짚고 있었다. 라틴계 이민자와 대립각 세우는 트럼프. 기자는 부부의 이야기에 심분 공감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매기려는 관세를 수준이라든지 대미투자 요구라든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예측 불허의 발언과 행동이 주는 쾌감도 있다. 진부하지 않은, 드라마틱한

부분에 가끔 끌린다고 할까.

한반도 문제에 트럼프보다 적극 행보를 보인 미국 대통령은 없다. 그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 데 있을지언정 한국으로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별 성과 없더라도 북미정상회담은 일단 성사되고 보는 게 백번 낫지 않을까 싶다.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에 백악관이 나서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단, 관세협상은 끝까지 신중했으면 좋겠다. 동맹을 떠나, 달라는 대로 주는 건 굴종이다. 경주 APEC정상회의 폐회 전 타결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29일 한국을 찾는다. 그가 쓰는 ‘드라마’의 결말이 사뭇 궁금하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9일 (음 9월 9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음악회에 초대 받으니 기쁜 하루. 48년생 거짓 눈물에 속지 않도록 하자. 60년생 집에서 나의 고생을 알아주지만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듯. 72년생 공짜에 맞들이다 밥맛 떨어질라. 84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



소

37년생 우러나는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49년생 돈하고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를 배려하도록. 61년생 앞날을 위해서 지금 실비보험을 들도록. 73년생 망신 살의 부정적인 神殺 주의를. 85년생 아부도 능력이라 했다.



호랑이

38년생 돌아가 쉴 집이 없다. 50년생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62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서 도로 아미타불. 74년생 차가우니 박하다고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86년생 인맥이 도움이 되어 난국을 타개.



토끼

39년생 힘겨움에 시달리는 건 결국 자신 책임. 5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신중. 6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으니 게으름은 떠나보내고. 75년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끽하자. 87년생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양

40년생 기대가 크나 시간이 많이 지나쳐서 이득은 적다. 52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일과이다. 64년생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마음에 있다. 76년생 이별 통보도 각자의 인연법. 88년생 상대의 바람 상태가 심하지 않아도 이해하기가.



뱀

41년생 병문안 가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보라. 53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65년생 첫 술가락에 배부르지 않다. 77년생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드러내지 말자. 89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풀여져 나간다.



말

4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실수가 없다. 54년생 마음만 잘 다스려도 재물이 찾아온다. 66년생 지각하지 않도록. 78년생 겨울이 아니어도 귀신과 액을 쫓기 위해 팔작을 쑤어 먹어보자. 90년생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어서 다행.



고양이

43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55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잎이 없다. 67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 79년생 헤어진 아픔은 신앙이 있다면 기도로 힘을. 91년생 저녁에는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



원숭이

44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 56년생 위장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으로. 68년생 계약까지 의외의 복병을 조심. 80년생 사건이 많다 보니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이해. 92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닭

45년생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건강에 도움. 57년생 재혼의 예단 준비로 의견충돌 예상. 69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인 것. 81년생 음주는 삼가자. 93년생 과학은 미래예측이 미리 예방되니 사전 준비할 수 있다.



개

46년생 나중에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고부간이 나의 일이 될 수. 58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움직여라. 70년생 그림을 취미로 해볼 것. 82년생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는 현상처럼 뻘쭙했다. 94년생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사 인연 법이기에.



돼지

47년생 약속 시각에 늦을 수 있으니 시계 잘 보도록. 59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지인을 잃는다. 71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을 들어라. 83년생 누군가를 재밌게 홍보는 일은 말아야. 95년생 말이 많으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자제해야.



김상회의四季

묘향산, 신비로움

한반도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묘향산을 꼽을 수 있다. 묘향산은 평안북도 향산군에 자리하고 있는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산이다. 이름처럼 기운이 향기롭고 오묘한 산으로 1,900미터의 비로봉을 비롯한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어우러져 용이 몸을 틀고 있는 형세를 보인다. 묘향산은 백두대간의 줄기에서 뻗어 나온 산맥이 서북부 지역에서 응집한 기운을 머금은 곳으로 천하명산으로 꼽힌다. 풍수에서 말하는 혈자리를 곳곳에 품고 있다.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 울창한 수림, 혈은 용맥이 멈춰 서고 뭉친 기운이 모여있는 지점이다. 이런 산은 자연의 기운이 밖으로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처럼 모이는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혈자리가 존재한다.

혈자리가 많다는 것은 강한 정기를 품고 있다는 방증으로 묘향산의 정기가 단순한 산악의 장엄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사방에서 모여드는 산세의 기운,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수맥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오래전부터 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것은 산의 정기가 특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보현사로 고려 현종 때 처음 지어진 보현사는 중창을 거쳐 유명한 대사찰이 되었고 팔만대장경의 판본을 보관했다고 한다. 사찰은 묘향산의 혈자리와 가까운 곳에 지어졌다고 하며, 가람의 배치도 풍수 이론을 따르고 있다. 특별한 정기의 묘향산은 예로부터 영산으로 꼽혀서 문화적 중심이 되기도 했다. 산의 정기가 수행에 큰 도움을 주어서 많은 사찰이 들어섰고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산으로 여겨져 많은 무속인이 기도하러 찾아오기도 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묘향산에서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니 거대한 에너지의 생명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신문은 고난이도의 월드파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스도쿠3650

153문제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중하스도쿠100

4	6	2		8	5		
	1					9	4
7							2
1			3	9	7		5
			5		2		
2			9	4	6		8
6							9
4	9					2	
		2	1		9	7	4

5				1	7		3	2
3				8		5		
	6			5				
4			9		5			
7	2	1				4	9	5
			7		2			4
				6			1	
		3	7					6
6	9		3	4				7